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경 요한복음 14:25-31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은혜의 찬양 566장)

오늘 이 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단한 우리 맘 열어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빛으소서

1



2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 1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 2 나의 생명 소생케 됴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 3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 4 생명 시내 넘쳐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 5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뵈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2



[후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말씀 읽기 요한복음 14:25-31

-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 29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 30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할 것이 없으니
-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본문 배경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 이후로 제자들을 떠나지만, 성령님을 통해 계속 제자들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보혜사'는 보호자,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와 같이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이후,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가르치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임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6절)

답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해설 예수님은 성령님이 모든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남아 구원의 길을 보여 주고, 성령님이 성도와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경고하시는 바를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건한 성도의 마음은 인생에서 모든 시험 앞에 불안하지 않고, 답지를 가진 자와 같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2 예수님은 곧 있으면 빌라도 앞에 서게 되지만, 평안해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31절)

답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30b절). 즉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십자가 수난을 감당하셨습니다(31절).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삶과 십자가 수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죽음과 심판이라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 적용

1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적이 있나요? 그때의 경험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누가 봐도 두려워해야 할 순간이었는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도리어 평안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의 경험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6-3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 = 120

작곡 이종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가정에배 기도문

평안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증거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